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7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84 호

총기 52년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회향
종령 유시문

대립에서 벗어남이 진정한 방생입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하반기 진호국가불공을 회향하는 날입니다. 지난 49일 동안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연·무연중생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용맹정진하신 총지종의 교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49일 불공을 원만히 회향하신 여러분의 공덕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방생이란 어류방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방생에서 마음의 방생, 일체 존재에 대한 방생은 물론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방생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대립에서 벗어나고 반목과 질시로부터 서로 해탈케 하는 것, 또한 진정한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간의 전쟁,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의 내전 등 지구촌이 국가, 민족,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이로 인한 국가들의 군비확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도 전운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어류의 방생, 인간방생을 넘어 국가 간의 방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동체대비, 불살생, 방생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총지중은 창종 이래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체 중생의 복락을 위하는 불공을 으뜸으로 여겨 왔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개인의 해탈에 앞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불공을 우선시 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총지중에서는 일찍부터 타 종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호국가불사를 비롯하여 통일의 염원과 재난불생, 산업발전과 국민간의 염원을 담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불공을 해왔으며, 오늘의 이 호국안민법회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법회로서 그동안의 불공공덕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하는 법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업중생으로 인연의 굴레에 묶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인연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그 존재에 대한 존귀함의 인정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불살생과 자비의 구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진호국가불사를 통하여 공생공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우리 사회가 좀 더 넉넉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들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기 52년 7월 15일
종령 법공 합장

북해도 강제 징용 조선인 희생자 ‘애도’ 종단협, 홋카이도에서 78년 만에 첫 위령재 봉행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지도자들이 6월 25일 홋카이도 일승사에서 '북해도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조국의 암울한 시기 강제 징용되어, 강제노동으로 힘든 삶을 사시다 희생되신 고인들의 비참했던 삶에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늦게 고인들을 추모하는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기억 없는 강제노동과 비참한 생활에 얼마나 힘들셨습니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부회

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지도자들이 ‘한국불교지도자 일본 북해도 불교문화교류’ 행사 이틀째인 6월 25일, 일본 홋카이도 후카가와시 일승사를 찾아 조선인 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을 이운해 불단에 모시고 ‘북해도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강제징용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78년 만에 한국불교지도자들이 최초로 위령재를 올렸다.

이날 위령재에는 종단협 소속 14개 종단 대표자와 이상호 문체부 불교종무관 등 36명의 한국 일행과 일승사 주지 토노히라 요시히코 스님과 부주지 토노히라 마코토 스님이 동참했다. 2면으로 이어짐

기로스승 상지화 지수 입적

6월 20일 고결식, 구경성불 서원

종단과 교화발전에 한평생 정진해온 기로스승 상지화 지수가 6월 17일 세수 98세, 법납 47세로 입적했다. 상지화 지수는 1976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승직에 올라 교화활동을 시작했다.

제2대, 4대 중앙종의회 종의원, 원의원, 재단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1976년 법장서원당(구 대전 백월사)의 초대 주교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밀교 포교에 앞장섰다.

1982년에는 오늘날 경기도 성남 법천사 전신인 시복서원당의 주교를 맡기도 했으며 1992년 본산 총지사에 머물다 1994년 기로진원에 들었다. 장례는 서울아산병원 빈소에서 통리원장으로 사흘간 치러졌으며, 20일에는 장의위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지화 지수 영식의 왕생성불과 구경성불을 서원하며 고결식이 봉행됐다.

상지화 지수 주요 수행이력

- 1976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 전법관정수계
- 1976년 법장서원당(구 대전 백월사) 초대 주교
- 1977년 제2대 중앙종의회 종의원
- 1988년 제4대 종의회 의원
- 1982년 시복서원당(현 성남 법천사) 주교
- 1988년 제4대 종의회 의원
- 1989년 원의원, 재단이사
- 1994년 기로원 진원
- 2023년 6월 17일 입적

종/조/법/어

해탈(解脫)은 자율적(自律的)이고 자주적(自主的)인 인격완성(人格完成)을 의미(意味)한다.

지 면 안 내

- 2면 총지 돋보기(4)/록경 정사
- 5면 이달의 왕생법문/ 故우승 종사
- 8면 남해 정사의 위드다르마(1)
- 9면 교도수행체험담⑤/신영자 교도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해탈절 법회안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2년 7월 15일(토)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특경 정사의
총지 돋보기 (4)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 창종 의미 집약된 의식

총지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49일 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린다. 금년 하반기 49일 불공이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상반기 불공은 2월 19일에 시작하여 4월 8일에 마치고, 하반기 불공은 7월 15일에 마친다. ‘진호국가불공’은 단절된 정통 밀교의 창조적 계승과 대승불교 이념의 현대화를 주장하며 종단이 세워진 뜻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의식 중의 대표적인 불사이다.

창종 당시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호국과 중생제도의 대비원을 세우시고 나라와 중생을 위한 길은 오로지 밀법에 의한 법요라고 강조하며 ‘진호국가불사의의례’를 제정하셨다. 아울러 스승은 항상 나라와 교도를 위하여 정진하며, 특히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특별정진토록 교시하셨다.

교사에 따르면 총기 4년인 1975년 4월 22일 ‘수호국계주경법(守護國界主經法)’을 근거로 한 진호국가 불사의의례를 제정하여, 스승과 교도가 다 함께 5월 5일 월요일부터 1주 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진하기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정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비로자나불의 결인인 ‘지권인’을 결하고, 수호국계주진언인 ‘옴흠야호사’를 외우고 있는데, 이의의례가 진호국가불공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불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불을 비롯한 사보살, 사대명왕과 사대천왕의 명호를 관송하는 것이다. 이를 진호국가불공의 ‘만다라관’이라고 한다.

오불은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계만다라의 오불이 있고, 『금강정경』에 근거한 금강계만다라의 오불의 두 가지가 있다. 총지종에서 진호국가불공시에 청명하는 오불은 금강계만다라(서원당 왼쪽 봉안)에 등장하는 오불이다. 진호국가불공의 의례가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경에는 금강계만다라의 오불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인을 행할 때는 금강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불의 ‘지권인’을 결하는 것이다.

진호국가불공은 국가 보은에만 그치지 않고, 사대보은의 불공으로까지 확대된다. 삼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국가의 은혜,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부모님과 부처님에 대한 보은에 대해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 주시고 부처님이 모든 것 내게 주시니 세세생생 그 은혜 갚겠습니다.’ <종조법설집 제2절 수행 편>고 설파하셨다.

그래서 하반기 49일 불공이 끝나는 7월 15일은 우란분절이자 백중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날은 지옥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위하여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가 범회와 공양을 올렸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종단에서는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재를 올리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공인 것이다.

이날을 특별히 종단에서는 ‘해탈절’이라고 부른다. 영원한 열반에 들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진호국가불공은 국가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공으로서 넓게는 사대보은의 불공기간인 셈이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추복하옵나니

효강 대종사·우승 종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 봉행



효강 대종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서울 총지사)



우승 종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포항 수인사)

불교총지종의 큰 스승으로서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밀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효강 대종사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달 30일 본산 총지사(주교: 특경 정사)에서 봉행됐다. 이에 앞서 우승 종사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는 지난 5월 23일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에서 봉행되었다.

동참 스승들과 유가족, 교도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두 스승의 열반 1주기를 추선하며, 다시 한 번 극락왕생과 열반정정을 서원했다. 또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총지사)과 부산경남교구 만다라 합창단(수인사)의 음성공양으로 추복의 마음을 더했다.

효강 대종사는 불교총지종 제9대부터 11대 종령과 5대, 9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내외적인 밀교홍포와 교화활동에 매진해왔다.

우승 종사는 효강 대종사의 종령 재임 시 제14대 통리원장을 역임하며, 종조전인 ‘원정기념관’을 역삼동 본산에 개관하고, 종조선양과 종단 홍보에도 힘썼다. 제5,6,7대 중앙종의회 의원 등 종단 주요직을 맡아오며 포교와 중생 교화에 앞장서왔다.

“조선인 희생자 유골 고국봉환 최선”

1면에서 이어짐

삼귀의례와 반야심경을 봉독한 종단협사 부대중들은 일동 묵념으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해 예를 표했다.

식순에 따라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의 헌향에 이어 우인 정사를 비롯한 종단협 소속 이사들의 헌향이 이어졌다. 부회장 호명 스님은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 애환고혼 영가들은 왕생극락세계에서 편히 쉬시라’는 축원을 올렸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추모사에서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으며 오늘 늦게나마 영령들을 추모하며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일본 사찰에 모셔져 있는 많은 조선인 희생자 유

골의 고국봉환이 원만이 이루어지도록 한국불교대표단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일승사 주지 토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은 1976년부터 ‘강제노동 희생자 유해발굴·죽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해 발굴 활동을 비롯해 희생자의 위패와 유골을 봉안하고 유골 환국 활동을 벌이는 한편 강제동원 전시관을 운영하며 전쟁의 참상을 알려왔다.

종단협 대표단은 위령재 자리에서 눈사태와 화재로 소실된 ‘사사노보호 전시관’의 재건립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며 희생자 추선의 의미를 더했다.

종단협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일원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일본 북해도 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제14회 불교총지종 경로법회 개최

오는 9월 19일~20일

경북 청송에서

경로 효친 사상의 실현과 교도의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격년으로 마련되고 있는 경로법회가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경로법회는 전국의 65세 이상 총지교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또는 본산 통리원
02) 552-1080~3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한일불교 교류 재개, 아시아와 세계평화 기원

6월 12일부터 3일 간 금산사에서 코로나 닫고 4년 만에 열려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 금산사 대회가 ‘한일 불교 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지난달 12일부터 3일 간 전주 일대에서 개최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진우 스님)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우조 스님)와 함께 첫날 한일불교문화교류 금산사대회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둘째날인 13일에는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40차 불교문화교류 금산사대회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으며, 당일 오후 라한호텔에서 ‘한일 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인사말에서 한일불교교류협의회 부회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지난 40년 동안 양국 불교는 교류대회를 통해 많은 현안과 과제들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아왔으며 특히 대회 때마다 변함없이 진행

했던 학술대회는 양국의 불교발전과 불교 세계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오늘의 학술강연회가 양국 불교뿐만 아니라, 아시아 불교와 세계 여러 종교에게도 화합과 평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울림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동참한 대중들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향운 스님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사토 류이치(佐藤隆一) 스님의 서명이 들어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며 폐회했다.

공동성명서는 “한일양국 불교도는 진정한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려 한다.”며 “40차 대회를 계기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양국 교류 모색과 함께 상호 연대로 지혜를 모아 사회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불교

도가 되기 위해 정진을 서원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도관, 수현, 룡경, 서강, 도우, 일진 정사가 종단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정각사 이상록 교도가 한일불교여성부 소속으로 동참했다. 한국측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진우 스님과 부회장 덕수 스님(전대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대표단 130여 명, 일본 불교대표단 70여 명,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불교교류대회는 한국과 일본 종단의 대표자들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만나 교류하는 대회로, 1977년 시작됐다.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19 탓에 중단됐다가 올해 4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됐다.

전주=박재원,김상미 기자



열반적정(涅槃寂靜)

지혜의 눈

종교는 크게 불교와 불교 아닌 것으로 구분
메시아니즘은 구원, 불교는 욕망을 놓는 길

마빈 해리스는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문화의 수수께끼’의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유령 화물’과 ‘구세주’, 그리고 마녀를 다루는 책의 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성립하는 원인으로 복을 부르고 화를 피하는 것으로 보는데, 유령 화물은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사상도 내가 포함된 우리 종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지배적 위치로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책에서 전투적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그 배경에 이민족의 지배라는 상황이 놓여있지만 약자에서 강자로 변신해서도 전투적 성격은 유지되어 자신보다 약자를 억압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종교의 목적이 다른 종족이나 민족이나 인종을 억압하고 수탈하기 위함에 있는 걸까요?

불교는 그러한 전투적 메시아니즘과 결을 달리합니다. 전투적 메시아니즘은 실제적 권력과 재화를 얻게 만들지만 불교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 욕망을 무한대로 충족시키는 지고의 복락을 맛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불교는 열반(涅槃, nirvana)을 제시합니다.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적정(寂靜)이라고도 합니다. 욕망을 붙잡고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욕망을 놓아 버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불교와 불교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지요. 특히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수행은 세속적인 건강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덕산(德山) 스님은 20세에 출가하여 경과 율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금강경』에 능통하여 그의 속성을 따서 세상에서 ‘주금강(周金剛)’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중국 남방에서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주장하는 선종이 널리 전파되고 있

었는데, 이에 그들을 교화하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마침 길가에 한 노파가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와 덕산 스님 사이에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노파가 떡을 주면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면 떡을 주겠다며 한 질문이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어 질문하였습니다. 즉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심(點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돌연한 질문에 덕산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문답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문처럼 비취지곤 합니다. 저는 떡으로 점심을 먹는다는 행위는 구체적인 일상적 삶을 가리키고 금강경은 그런 일상의 삶을 추상(抽象)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일상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모든 종교의 경전은 상대적으로 간략합니다. 선문답의 구조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답입니다. 발을 갈고 땀감을 하고 밥을 짓는 일상속에서 주고 받는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선종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별도의 종교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덕산 스님은 이윽고 용담송신 선사를 만나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밤이 깊도록 송신스님 방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밖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용담 선사는 촛불을 건네주었는데 덕산이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입김으로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때 덕산은 활연히 깨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촛불을 경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안내자일 뿐 깨달음, 또는 구원은 스스로 찾아야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밀교의 전래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1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2. 정통밀교(正統密敎)는 조직(組織)과 체제(體系)를 갖춘다.

경전(經典)의 종류를 소승(小乘), 대승(大乘), 밀교(密敎)로 구분(區分)하여 하나하나 검토(檢討)해보면 소승에 속하는 장아함경(長阿含經), 장부경전(長部經典) 중에도 대회경(大會經)과 같이 밀교적(密敎的)인 것도 있고 팔리어성전(聖典) 가운데는 밀주(密咒)도 있다. 또 초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에 속하는 법화경(法華經)은 다라니를 설했고 본연부(本緣部)에 속하는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보요경普曜經)도 밀교적(密敎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밀교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밀교가 아닌 것을 주의(注意)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통력(神通力)이나 주문(呪文) 등은 밀교적이기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

정통적 밀교는 반드시 조직과 체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밀교(類似密敎)다. 바른 밀교는 인간과 자연계(自然界)를 완전히 조화(調和)하여 파악(把握)한다. 특수(特殊)한 것 가운데서 일반성(一般性)을 인식(認識)하고 개개의 류(類)에서 실현(實現)한다. 개개의 인간은 고립적(孤立的)인 존재(存在)가 아니고 모든 인간과의 관련(關聯)을 가지고 존재(存在)가 아니고 모든 인간과의 관련(關聯)을 가지고 존재(存在)하므로 이것을 밀교에서 중중제망(重重帝網)이라고 한다. 또 인간과 자연계가 따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연계는 인간에 의하여 실현(實現)된다.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종속(從屬)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종속하는 것이다. 한조각 풀잎에도 우주정신(宇宙精神)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밀교에서는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의 법신체(法身體)로 보고 육대연기(六大緣起)라고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 즉 당상즉도즉사이진(當相卽道卽事而眞)의 부정(否定)이 아닌 현실긍정(現實肯定)의 교리(敎理)가 성립(成立)되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

밀교란 무엇인가, 그것도 바른 밀교의 교상과 사상에 이르면 아무래도 어려워진다. 진언과 다라니, 혹은 신통력과 같이 단편적인 요소만을 밀교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핵심 사상을 이해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중중제망’이다. 제망이란 제석전의 그물로, 인드라망이라고도 한다. 고대 인도의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의 제왕이 인드라신인데 그 곳에는 그물이 있다고 한다. 이 그물은 하늘을 덮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물코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슬이 달려있어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 그것이 끝없이 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중제망’이고,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이 무수하게

는 의미이다. 상상 속의 인드라망이 공존과 공생, 생명과 평화의 엠블럼이 된 셈이다.

불교사상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연기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무아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므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과법, 인연법이라고도 하는 연기사상은 솔직히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여 모르는 사람도 없고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온전히 그러한 인식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신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성스러운 존상인 대 만다라, 지물과 수인으로 표현하는 삼매야 만다라, 문자로 표현하는 법 만다라, 모든 위의와 행위인 갈마 만다라를 두루 갖추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우리의 모든 의도와 행위는 법신 대일여래와 다름이 없다. 현교에서는 삼엄이라고 하지만 밀교에서는 삼밀이라고 한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두 법신불이기에 신비로운 것이고, 법신불의 작용임에도 어리석은 중생들은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 신비로운 것이다. 모든 현상은 법신불이 나타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뜻은 그대로 진리가 된다. 법신불의 삼밀과 중생의 삼밀 사이에 차이가 있고 틈이 있다면

‘바른 밀교는 인간과 자연계를 완전히 조화하여 파악’

번뇌가 보리, 생사가 열반, 중생이 부처인 대긍정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제망잘해’이다. 이 세상 만물은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담이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축구경기에서 역전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가 골 세리머니를 했을 때 어깨에 새겨진 인드라망 타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람과 나무와 풀, 새와 물고기와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해와 달을 형상화한 이 문양은 지리산 실상사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서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근원이자 의지가 되어준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단어는 색심불이, 당상즉도, 즉사이진이다. 우주 만물은 상호의존적인 연기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안과 밖, 앞과 뒤, 개별과 전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경계가 없다. 무수히 넘나들고 주고받는다. 이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객관대상과 주관이 둘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나와 우주가 한 몸이라는 사상으로 승화한다. 하나하나의 현상계가 그 자체로 진리가 된다. 그것이 법신불이다.

물질과 정신을 이루고 있는 존재의 기본요소를 지, 수, 화, 풍, 공, 식, 여섯 가지로 설명하되 밀교에서는 이 6대를 현상의 원소일 뿐 아니라 우주의 본질이자 법신 대일여래의 본체로 본다. 또한 이 세상은 법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서, 본래부터 갖춰 있는 진리의 본체를 자각하고, 찾고, 일치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밀교 수행이다. 색심불이, 즉 대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당상즉도, 현상이 곧 진리이며, 즉사이진, 낱알의 일들이 모두 진실임을 깨닫는다면 번뇌가 보리이고 생사가 열반이며 중생이 부처인 대긍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조각 풀잎에도 우주정신이 들어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다고 흘려버릴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달의 왕생법문은 우수 종사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추선의 마음을 담아 우수 종사님의 2006년 5월 24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린 ‘나누는 기쁨, 깨침의 소리 100일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나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법이니라.”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3대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주 교동에는 조선의 부호 최부자가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은 12대, 400년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9대에 걸쳐 진사(進士)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가훈을 받들고 가훈대로 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 가훈 중 하나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였습니다. 옛말에 아흔 아홉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백 채를 가지기 위해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자손들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훈을 받들어 욕심을 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죽은 후에 인물이 나더라도 진사이상 시키지 말라.’입니다. 그 당시 진사는 명예직으로 실권은 하나도 없고 그 지역에서 유지의 노릇만 하였습니다. 최부자가 자손들에게 진사이상 벼슬을 못하게 한 것은 정치와 권력은 무상한 것이라, 한번 정치에 입문하여 권세를 가지게 되면 탐닉되어 빠져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세

의 판도에 따라 사람의 목숨과 재산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최부자로 꼽히는 최준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했으며, 독립 후 학교를 건설하며 교육사업에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최씨 집안은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400년 동안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는 정신문명을 도외시한 채 물질문명만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청정하고, 만족 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잘되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지고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불운이 닥치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

“이 순간 한 생각에 따라 극락과 지옥”

우수 통리원장, 불교방송 100일 법문

총지종 우수 통리원장이 지난 5월 2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300여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누는 기쁨, 일체유심조’라는 주제로 법문을 하였다.

이번 법문은 불교방송에서 주최하는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의 100일 법문’으로 3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한국의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행사이다.

우수 통리원장은 법문에서 “경주의 만석꾼인 최부자가 4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비결로 ‘첫째 내가 죽은 후에 만석이상의 한 석도 더 이상 가지지 말라. 남은 것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살피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모든 것을 대중들에게 회향하라. 둘째 내가 죽은 후에 큰 인물이 나더라도 진사이상의 벼슬을 가지지 말라. 셋째 가훈을 후손들이 받들고 소중하게 간직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400년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낙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남에게 봉사하며 사회와 더불어 살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도 더불어 행복과 부귀를 누리며 세상을 살아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의 마

총지종 우수 통리원장이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음가짐에 따라 극락과 지옥이 결정되므로 순간 순간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살아 가는 것이 불제자의 도리이며, 매일 매일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바란다”고 법문을 하였다.

람들은 자신 보다 못되고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잘되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 번이나 정승자리에 올라 백성들을 애민했던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의 집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대강 어르신, 오늘 아침에 우리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오늘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흑어 소에게 부정이 탈까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될까요?” 여쭈었더니 황희 정승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다른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오늘 아침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제사를 지내도 되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황희 정승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은 “사람이 소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사를 지내고, 소가 태어나서 제사를 지내지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황희 정승께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황희 정승은 “사람은 다 마음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나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법이니라.”하였습니다.

황희 정승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 만물은 마음에서 생겨난다하여 ‘일체유심조(一切 唯心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절에 나가 부처님께 참배하는 것, 매일 기도, 참선, 염불하는 것도 다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매일 불공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자신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맹구우목(盲龜遇木)! 물속에 있던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때 물위에 있던 나무의 구멍 뚫린 옹이에 머리가 끼이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맹구우목과 같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남이 나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자기를 확대하고 비판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중한 자기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열심히 불공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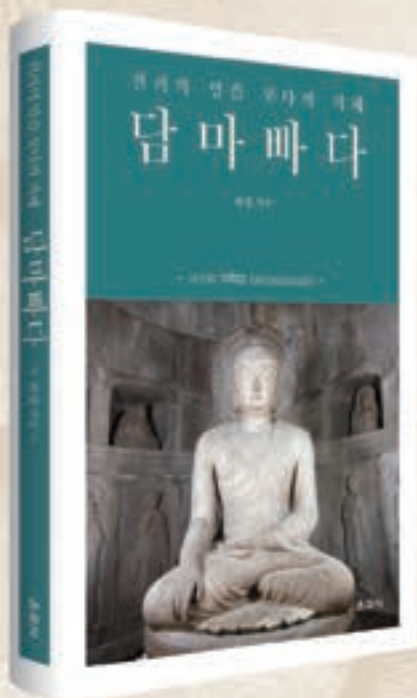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일 지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살님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 참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보살은 반병 남은 참기름을 보고 ‘벌써 다 먹었네,’ 어떤 보살은 ‘아직도 이렇게 남았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감인의 세계, 인욕의 세계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멀었네.’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아니 벌써 이렇게 지났나.’하고 생각하면 자신의 일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더군다나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나 수행하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소중한 나이기에 순간, 순간의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고, 부처님의 법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지으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자들이 범신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서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부처님께 귀의는 정신적 생명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1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대성사는 수행 중 자신에게 닥칠 운명과 앞길을 예감하고 있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심하고 있던 터였다. 그 깊은 마음의 심지에 대해 어느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국가와 사회가 있어야 내가 생존하지 않는가. 한 쪽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구도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에게 목숨을 바쳐 귀의한다는 것은 이 정신적인 생명을 부처님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처음 만남이지만 두 성인은 마음이 맞았다. 회당 대종사가 제안한 것은, 밀교 교법을 펼쳐 종단을 일으키는 데 자신은 바깥일을 도모할 테니 교리와 수행체계 그리고 교단을 정비하는 일 등 안 일은 대성사가 맡아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수행도 결국은 작은 나에게서 벗어나 대아를 성취하기 위함이니 자신의 안락을 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번거로움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일었다.

결국 회당 대종사의 구함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고통 속에서도 일심을 잃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불교를 공부한 본 면목인 것을 알았다. 대성사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내 려놓고 행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긴 바 있다.



밀양농림중학교의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던 대성사(맨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나(我)란 자기 이익을 구하고 편안하길 바라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 의견을 세우게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아의 속박을 받아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부처님께서서는 나란 결코 불변의 실체가 아니란 것을 가르치셨다. 나에 집착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노여움과 욕망의 망념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게 되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란 것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이며, 나를 오직 멸하려고 수행하는 것은 소승小乘이다. 작은 굴레에 스스로 갇힌 소아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 자기 굴레를 넘어선 대아로 나아가는 것이 곧 대승의 길이다. 그로부터 대아를 세워서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 이익 되게 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일에 봉사하기 위해 자기를 닦아가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현세를 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와 같은 뜻이 있어서였으며,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위기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일도, 자신과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모두를 위한 구제의 길을 세우겠다는 대아의 실천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그 첫 만남은 한국 현대 밀교가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찰나의 순간이 영원한 역점의 시간을 진리로 이끈 것이다.

대성사는 당시 밀양농림중학교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 행정업무를 맡은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이는 성품과도 잘 맞아 오래도록 해오던 일이었다. 남을 돕고 가르치며 공적 업무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 자세는 직원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후일 총지종 스승의 상

은 모두 대성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대하면서 몸에 밴 것으로 실제적이고 절실한 모범이 됐다. 대성사가 후대에 당부한 스승의 사명은 실제로 당신이 학교에서 행한 사표 그대로이며, 진각종의 기틀을 잡을 때나 총지종으로 법을 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강조했던 내용이다.

“스승은 매일 따르는 교도들과 만나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으니 종단의 성쇠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스승이 되면 세간의 즐겁고 괴로운 일에 이끌리지 말고 초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신의 인생관을 바로 세우고 그 지표대로 생활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

해방 전후 좌우의 충돌과 전쟁 속에서 자신은 아들의 실종이란 일을 겪었지만, 동요하지 않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교 업무를 처

리한 그대로이다. 대성사의 철저함은 가르침이 단순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실행한 바를 전한 것이라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

회당 대종사와의 만남을 통해 이 땅의 고난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구해야겠다는 발심을 크게 한 후 이제까지 자기 수행으로 살펴보던 경전과 불교 교리를 다른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불교의 교리와 수행관을 철저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믿음의 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 탐구했다.

우선 밀교법에 관한 경전을 찾아 읽고 수행법을 살펴보았다. 당시에는 불교 서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특히 밀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이해는 전혀 없던 때라 경전 구하기가 사막을 맨발로 걷기보다 어려웠다. 인맥을 통해 백방으로 책을 구했으니 일본어로 된 불교서적들이 대부분이었다. 대성사는 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갖춘 터라 한문 경전과 일본어 책을 통해 밀교에 대한 대강의 열개를 파악해 갔다. 한문과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까지 섭렵한 지라 책만 있다면 어떤 언어로 된 것이건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 책을 갖고 있거나 불교에 해박한 이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돈과 정성을 모두 바쳐 밀교의 가르침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밀양 일대의 불교도들과 교류가 이어졌다. 비록 전쟁 통이지만 그들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책을 구해와 읽기도 하고 또 자신이 찾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들에게도 이야기했다.

당시 진각종은 경북과 경남 지방에 막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한 사람의 교도와 한 스승의 원력이 간절할 때였기에 대성사가 오가며 사람을 모으고 불법을 이야기한 것은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밀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시 참회원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던 교단은 전쟁 중에 심인불교 건국참회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곧 심인당으로 개명을 하게 된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불공 잘해라”, 평생의 법문을 마지막 법문으로 남기다

총지종의 역사

04. 한국불교계의 큰 별이 지다

종조 원정 대성사 입적

원정 대성사는 몸소 깨친 밀교의 정수를 체계화하고 자칫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밀교수행법을 대중화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총지종을 창종한 후 비밀의궤법에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현대인의 생활환경에 맞춰 불사와 식순을 간소화했다.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시불공 처처불공의 생활불교 철학을 총지종의 사상과 교의체계, 수행의궤와 조직체계에 세심하고도 여법하게 정립하고 안착시켰다.

대성사는 항상 총본산을 지켰다. 홀로 있을 때면 손에는 늘 염주를 들고 있었고 진언이 끊이지 않았다. 총지사에 찾아오는 교도는 언제나 대성사를 만날 수 있었다. 마음속 사정을 털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심지를 지켜 법계의 응답대로 행할 것을 일러주었다.

설법과 일상의 대화가 다르지 않았고 가르침과 실제 행이 한결 같았다. 그래서 대성사를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친근하면서도 엄숙했고 자애로우면서도 냉철했다고 회상한다.

1980년 9월 8일, 대성사는 74세를 일기로 생로병사 희비애락의 육신을 벗고 멸도에 들었다. 정통밀교종단으로서 총지종의 모든 체계를 완벽하다고 할 만큼 완성한 뒤였

다. 입적하기 두 달여 전,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7월 18일 임시 원의회를 소집하여 종정 전반기를 록정 정사에게 맡기고 제자들에게 밀법 홍포의 대원을 부족했다.

“불공 잘해라.”
평생의 법문을 마지막 법문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종단이 나아갈 바를 한 치의 빈틈 없이 완성했지만 종단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대성사의 지혜와 지도가 간절했기에 스승과 교도들은 충격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대성사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감화를 받은 이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에 함께 한 이들은 황망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영원한 마음의 스승이자 의지처였던 대성사를 그렇게 영영 떠나보내야 했다.

이 땅에 처음으로 현대 한국 밀교를 꽃피우고 대승불교의 시대적, 현대적 실천상을 생활불교와 재가종단으로 개척한 원정 대성사. 밀교의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여 감춰진 밀교수행법을 환히 밝힌 대성사는 명실상부한 정통·정법의 밀교종단으로서 총지종의 면모를 확고히 갖춰 교도들이 걸어갈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원정 대성사의 대원력과 간절하고 세심한 가르침은 수많은 진언행자의 가슴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원정 대성사의 정법유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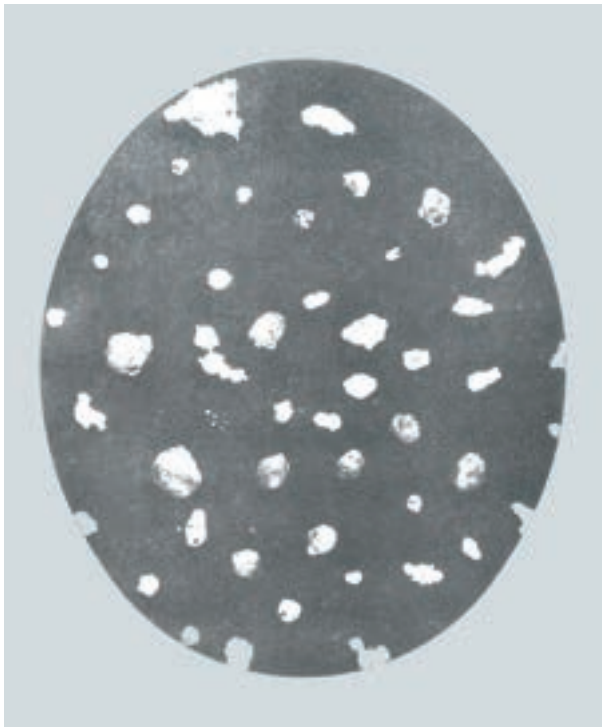
- 1. 종단의 화합에 노력할 것
- 2. 공금, 단시금은 진리에 계합되게 사용할 것
- 3. 오계를 결범하지 말 것
- 4. 정법준수와 교법을 고치지 말 것
- 5. 전당건설은 사길성법으로 시행할 것
- 6. 혈맥계승은 종령에서 종령으로 할 것
- 7. 삼밀수행과 육행실전은 종단의 덕목이니 명심할 것



1980년 9월 8일, 대성사는 74세를 일기로 생로병사 희비애락의 육신을 벗고 멸도에 들었다.



영결식 후 운구 행렬 모습



대성사 사리(舍利). 역삼동 원정 기념관에 모셔져 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신라 불가사의 아사리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

종교와 지식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손에게 전하는 생명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불교의 생명력은 법에 대한 탐구와 변화이며 밀교가 탄생한 이유와 과정도 그리 설명된다. 당조의 밀교가 절멸한 이후 동아시아불교의 중심지는 고려로 옮겨갔으며 고려불교는 신라불교에서 비롯된다. 조선 초 많은 밀교문헌들이 산실된 가운데 신라승 불가사의 아사리 저술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이하 『공양차제법소』)는 동아시아를 뒤흔든 명저였다. 선무외삼장은 『대일경소』를 통해 동아시아에 특색한 중국 종파불교의 이론들을 진언문으로 회통하고 진언문의 역사적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공양차제법소』는 진언문의 실천원리를 요약한 간결한 실용서이다. 『공양차제법소』와 최근 일련의 논문들을 다시 살펴보니 옥나영 교수의 말대로 『공양차제법소』의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는 주장이 새로이 실감이 났다. 개인적으로 『공양차제법소』의 저술동기에 대해 영묘사 출신 불가사의 아사리의 출배경을 들어 신라 화엄계가 비로자나여래의 실천원리를 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재고한 결과 『공양차제법소』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유가행에 기초한 것을 고려할 때 화엄계뿐만 아니라 원효의 말년 저작인 『금강삼매경론』과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유가론』을 빈번히 인용하지만 오히려 전작인 『대승기신론소별기』의 이론을 완생하려는 의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송고승전』에는 신라의 왕후가 머리에 종기가 났을 때 신하를 당에 보냈는데 중간에 서해 용왕이 나타나 왕후가 청제의 셋째 딸임을 밝히고 『금강삼매경』을 유포할 것과 원효로 하여금 주석을 저술하도록 부촉하였다. 신하는 장판지를 베어 경전을 넣어 봉하고 원효에게 전하니 원효는 “이 경전은 『기신론』의 시각과 본각의 이각(二覺)을 종지로 삼은 경전이다. 소의 두 뿔 사이에 책상을 안치하고 지필묵을 나에게 준비해 주시오.”라고 했다.

원효는 소의 등에 올라탄 채 5권의 주석을 단박에 마쳤다. 원효는 왕의 명령으로 황룡사에서 강설토록 하였으나 원효를 시기한 자가 주석을 훔쳐 달아나자 원효는 다시 단박에 암기한 대로 사흘 만에 책을 복원하였다.

김호귀는 『금강삼매경론』의 해설에서, “첫째의 단락은 관(觀)이고, 둘째 단락은 행(行)이며, 셋째 단락은 관과 행이 함께 실천되는 모습이다”라고 하였는데, 『금강삼매경론』에서 전개한 실천원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말이다.

원효는 「여래장품」에 대해, “첫째는 제법이 하나의 실재적 진리에 들어 있음을 설명하고, 둘째는 제행이 하나의 불도수행의 길에 들어 있음을 설명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 경전이) 미혹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일미에 통달하지 못한 자를 위해 설한 것

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사의 진리와 방편을 전개하는 이론과 일치한다. 아사리 불가사의도 『공양차제법소』에서, “깊고 심오한 무상법(無相法)은 열등한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마땅히 저들과 더불어 후세를 위하여 유상(有相)을 함께 설한다.”라고 하였다.

아사리 불가사의는 자신의 활동기에 원효 성사의 저술들을 열람했을 것이다. 훗날 도당하여 나란 다대학 출신의 선무외와 만나 담론하였을 때 원효 성사가 전개한 이제설과 여래장의 이론들이 진언문의 수행으로 정비된 것을 보고 원효 성사의 선구안과 지혜에 감복했을 것이다.

진언문이 신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유가도 그 틀을 잃은 채 선불교에 휩쓸려 중매마저 단절되었을지 모른다. 진언문이 들어와 인도불교 유가행의 면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불교도 함께 발전하고 나란다대학 출신의 지공 같은 스님이 증명했으리라 생각한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이론들은 7, 8세기 인도불교 대승학파들이 발전시킨 주장과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불교사의 입장에서 아사리 불가사의의 한편의 밀교저작인 『공양차제법소』에서 신라가 꽃피운 불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니, 진언문에 심신을 담은 후손들이 어찌 가슴이 벅차지 않겠는가?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남해 정사의



참으면 복이 올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참으면 복이 와요!”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이 있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여 들어가 읽어보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이겠지요. 참아야 합니다. 한번에서 열 번을 세며 백번을 참고도 끝끝내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참아야만 살아서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은 바다같이 넘치고 모래알처럼 많습니니다. 그렇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지 않고는 살아 버틸 수가 없습니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 할 수 없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끈하게 다 화 낼 수 없습니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 세상이 회색으로 뒤덮이어도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고 참아서 다시는 무엇도 되찾아지지 않을 진정, 달콤한 어제의 추억도 흐려지고 푸르른 꿈이 설레는 내일의 희망도 모두 사라질망정, 오늘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지만, 웃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참기만 하면, 혹은 참기만 해도 복은 올 것입니다.’이다.

이글의 핵심은 참기만 해도 복이 온다는 것이다. 슬프고, 힘들고, 화가 나도 참기만 하면 복이 온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흑백논리처럼 보인다. 참으면 복이 오고, 참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을까? 정말로 참으면 복이 올까요? 내 생각은 ‘아니요!’이다.

우리가 위의 글에서 정말 알아야 할 핵심은 참기만 해도 복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화가 났다는 사실이고, 위의 글쓴이는 슬프고, 힘들고, 화가 나지만 참으면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를 참고 참다보면 언젠가는 넘치게 될 것이고, 화산처럼 폭발하게 될 것이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넘치듯이, 참는 것이 궁극에 이르게 되면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오게 된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화를 참는 것이 인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욕이라는 것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인욕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를 참을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일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에서 인욕수행이란 ‘나’라는 이기적인 집합체를 해산시켜,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내 생각이다. 라고 하는 개념들을 깨뜨리는 것이다.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과 욕망과 아집은 ‘나’라는 집합체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여도 아주 힘들게 되고, 결국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인욕수행을 하는 이유는 미움과 화, 분노를 참아서 화를 더욱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그것을 나에게서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인욕수행의 목적은 ‘나’라는 집합체에 미움과 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배움과 나눔, 포용과 자애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바지를 입을 때 허리끈을 맨다. 허리끈이 너무 느슨하면 바지가 흘러내릴 것이고, 허리끈을 너무 꽉 조이면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다 결국은 터져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허리끈이 허리에 잘 맞는다면 우리는 허리끈을 맨 사실조차 잊고 살 것이다. 허리끈을 맨 사실조차 잊고 산다는 것, 이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중도이고, 인욕이지 않을까.

해	탈	절			나		삼	계	탕
루			경	동	시	장			비
질	풍	노	도		고		밤	마	실
	비			머	랭			호	
은	박	지		털			울	가	미
	산		파	도		양		니	
이		세		사	필	귀	정		허
목	련	존	자			비		고	수
구			유	니	콘				아
비	트	코	인		칩	거		루	비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교도수행체험담 ⑤

스스로 닦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총지사 신영자 교도

옛말에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집안을 돌본다는 뜻이지요. 저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수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탄할 리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입교할 당시에도 저는 여러모로 지쳐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한 보살님께서 “내가 다니는 절에서 놀러가는데 같이 가자. 관광도 가고 하면 재밌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당시에 어디를 놀러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제 삶이 너무도 고되고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몇 차례나 거절을 했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절은 돈도 별로 안 들고 스스로를 닦으며 수행하는 곳이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 같다.”며 그 보살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유회를 다녀온 후 보살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모른다. 다녀봐야 안다.”며 저에게 딱 일주일만 다녀보라며 권유하셨습니다. 밀려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일주일은 열심히 나옴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 하는 대로 흉내만 냈습니다. ‘옴마니반메후’만 하면 된다고에 의미도 모르고 진언을 외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원하는 것을 서원하면서 염송을 외었습니다. 그때 가장 간절했던 것은 아들의 학교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절엔 나갔는데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보살님을 통해 저에게 구원의 손을 내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신이 나서 아들이 다닐 학교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절에 나가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절을 찾았는데 전수님께서 “보살님 오랜만입니다. 아드님 학교에 입학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보살님 조금 더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지런



히 닦으시는 게 어떠세요?”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드린 불공 공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스승님께서 향로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님 직접 향로를 닦으시나요?”하고 여쭙니 대답하시길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하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향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향로를 닦다 보면 어떤지 스스로를 닦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제가 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절에서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작열하는 마음에 폭포수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처님에게 가장 큰 공덕을 받은 것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가 사는 게 참 힘들었던 이유가 대부분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젊을 적 남편의 외도로 저는 남편을 미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를 토크하면 저에게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인 즉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정말 열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키우던 돼지가 새끼를 7마리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새끼 돼지들을 시장에 내다 팔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 시장에 새끼를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미 돼지가 세상이 떠나가

라 우짚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잔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보내면 저래 우짚는데 사람이 내 새끼를 외면하면 사람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 자식들은 내가 키워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경제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꽤나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면서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 마음속 한 군데에 자리 잡아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 그것도 모두 다 내 업이라 생각하며 가장 간절하게 바란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물방울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데 저라고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남편을 생각하며 불공을 드리자 어느 날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원저를 보며 약을 지어 먹으라고 돈을 쥐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저의 가장 큰 서원을 이루었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언타까지 앓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거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때의 행동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늘 불공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참 미안하다. 지은 죄가 크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자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소. 그런 말씀 마세요.” 하며 다정히 저를 달래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회하고 반성합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지난날의 저를, 아이들에게 함부로 행동했던 지난날의 저를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의 저를 남은 생 앞으로든 계속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이법을 안 만났더라면 우리 가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가장 큰 서원을 이루어주시고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스스로를 닦아나가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갖자

과거 삼국시대 고구려에 고려장이란 풍습이 있던 시대에 박정승이란 사람이 있었다.

박정승이 어느 날 노모를 지계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눈물로 노모에게 절을 올리면서 마지막 이별을 고하자, 노모는 ‘내가 돌아가는 길에 흑여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고 조용히 일러 준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의 안위를 생각하는 노모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 박정승은 몰래 국법을 어기고 노모를 다시 모셔 와 봉양을 하게 된다.

그 무렵 중국 수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두 필을 끌고 와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는 문제를 내게 된다.

만약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조공을 받겠다는 심산이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박정승에게 노모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말을 굶긴 다음 여물을 쥐 보렴, 그러면 아마 먼저 먹는 말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이 바로 새끼란다.”하고 일러 주었다.

고구려가 이 문제를 풀어내자, 중국은 또 다시 두 번째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번에는 네모난 나무토막을 하나 주면서 위와 아래를 구별해 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모는 “나무란, 원래 물을 밑에서부터 위로 빨아올린다. 그러니 물에 뜨는 쪽이 위쪽이란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했다.

고구려가 이 문제마저 결국은 풀어내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수나라는 또 다시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새로 새끼를 한 다발 꼬아서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당시 나라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박정승의 노모가 하는 말이 “얘야, 그것도 모르느냐? 새끼 한 다발을 꼬아서 불로 태우면 남은 것이 바로 새로 꼬아 만든 새끼가 아니고 뉘냐?”

당시 중국의 수나라에서는 아무도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했는데 고구려가 이 문제를 풀자 과연 “동방의 지혜가 많은 민족이다.”라며 다시는 깔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당시 수나라 황제인 수 문제는 “이 나라(고구려)를 침범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런데도 이 말을 거역하고 아들인 수 양제가 두 번이나 고구려를 침범해 왔다.

113만 명이 넘는 대군으로 침략을 했지만 우리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으며 결국 그로 인해 수나라는 멸망해 버리게 된다.

수나라가 멸망한 후 그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바로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마저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구려를 침범했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역시 대패하였으며 당시 황제인 당 태종은 이 전쟁에서 화살에 눈이 맞아 애주가 된 채로 죽게 된다.

이렇게 해서 노모의 현명함이 세 번이나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왕을 감동시킨 일이 있는 후, 고구려에 있던 고려장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에도 지혜로운 노인이 필요하다.

물론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이는 기억력을 빼앗아 가기는 하지만 빈 자리에 통찰력을 가득 채워 주고 간다.

노인의 많은 지혜와 다양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매우 절실한 요즘이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절대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풍토는 고쳐져야 한다.

노인은 우리 모두의 우리들의 부모님이자 이웃 어른이기 때문이다.

늘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법등	6/19	50,000	동해사	김진화	6/5	10,000	수인사	수인회일동	6/14	50,000	총지사	록경	5/27	20,000					
관성사	보명심	5/25	10,000		송인근	6/19	10,000	시법사	해광	6/7	10,000		자비연등	5/30	636,000					
	우인	6/19	10,000		법선	6/19	10,000		이순영	6/7	20,000		유은혁	6/3	10,000					
기로스승	해정	5/24	10,000	만보사	홍도열	6/7	10,000	실보사	서령	6/8	10,000		김정환	6/4	10,000					
	공덕성	6/19	20,000		이종구	6/12	7,000		해원정	6/8	10,000		백귀임	6/12	10,000					
	상지화	6/19	10,000		김정희	6/19	10,000		황성녀	6/2	10,000		최영아	6/12	10,000					
	수증원	6/19	10,000	밀인사	김광혁	5/30	10,000	실지사	유승우	6/8	10,000		신현태	6/14	10,000					
	밀공정	6/19	10,000		김재영	5/30	10,000		이도현	6/8	10,000		록경	6/20	20,000					
	선도원	6/19	10,000		정정희	6/1	5,000		이서현	6/8	10,000		통리원	김평석	6/19	10,000				
	법지원	6/19	10,000	법천사	반야심	5/31	10,000		이루나	6/8	10,000			김평석	6/19	10,000				
	일성혜	6/19	10,000	법황사	박미경	5/25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5/25	8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5/30	80,000					
	사홍화	6/19	10,000		인선	6/19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5/30		80,000	강동화	6/1	10,000				
	안주화	6/19	10,000		정계월	6/19	1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5/25	80,000	화음사	무명씨	6/5	10,000				
	진일심	6/19	10,000	벽룡사	승원	6/19	10,000		구미자	5/31	10,000	박옥자		6/5	10,000					
	시각화	6/19	10,000		묘원화	6/19	10,000	자석사	도우	6/5	10,000	무명씨		6/9	30,000					
	최상관	6/19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6/1	80,000		참원햇살 어린이집	지현	6/5	10,000		무명씨	6/12	10,000				
	연등원	6/19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5/25	10,000		김선희	5/26	8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6/12	80,000				
	자선화	6/19	10,000			진여	5/25	10,000	정각사		노점호	5/22		10,000	*포항 대령리 후원금					
승효제	6/19	10,000	이주용			5/31	20,000	김침남		5/26	20,000	기로스승	총지화	6/19						
하현정	6/19	10,000	김지은	6/12		20,000	탁상달		5/31	10,000	관성사								우인	6/20
장정숙	6/19	10,000	박필남	6/15	10,000	안한수		6/4	10,000	제석사										
신말심	6/19	2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용기	5/25		20,000	이진승	5/31						10,000					
단향사	지홍	5/22		10,000	나석원	5/25	50,000		제석사			이진승	5/31	10,000						
	이수형	5/22		10,000	박현정	5/25	20,000				제석사	이진승	5/31	10,000						
덕화사	지홍	6/18		10,000	수인사	법상	5/25			20,000		제석사	이진승	5/31	10,000					
	법상인	5/25	20,000	수인사		법상	5/25	20,000		제석사			이진승	5/31	10,000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16>

경전의 한글화, 대중화의 성과와 과제



봉선사 대웅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역경 불사의 원력 보살인 월운 스님이 법납 74세, 세수 95세로 지난 달 입적하셨다. 스님은 은사 운허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1964년부터 역경 불사에 참여하여 평생을 경전의 한글화에 정진하였다. 월운 스님이 주석하였던 봉선사 대웅전의 현판은 한글로 ‘큰법당’이라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큰 절 중에 유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한자를 문자로 소통하여 왔다. 조선조 세종대왕이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 한글을 창제한다.’고 할 때까지 우리 민족은 중국 문자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말과 다르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어 조선시대까지 한자를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이런 까닭으로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될 때부터 우리 민족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말로 배우지 못하고 중국 문자로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려 팔만대장경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집대성할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을 지극 정성으로 받아들이어 신행하였다. 이것은 중국에도 인도에도 볼 수 없는 실로 장엄한 불사였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한자로 소통하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불교의 진정한 대중화는 참으로 어려웠다. 경전에는 부처님 당신께서도 생사 해탈의 깨달음은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워 이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내기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씀이 자주 나온다. 그냥 같은 말로 법을 설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어려운 한문으로 된 경전을 공부해서 깨우치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사에는 수많은 조사 선지식이 배출되어 한국 정신문화를 찬란하게 밝혔으니 실로 눈부신 성취다.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는 한 단계 도약할 때가 되었다. 20세기에 한글이 보편화되었고, 21세기인 지금에는 한문은 거의 유물이 되었다. 이제 한글 역경사들의 원력행 덕분에 불교 한문 경전의 한글화와 정보화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한글로 된 대장경을 검색하여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불교 경전의 한글화라는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한국불교계에는 불교 경전 상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다. 남방 스리랑카에 전승되어 오던 팔리어 경전이 한글로 역경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대승 한문본 경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한문본 대승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범어)로 경문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팔리어본 경전은 대승 경전 보다 더 오래된 경전이니 부처님 말씀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결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남방 전승 초기경전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고 ‘대승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불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스스로를 초기불교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대승 경전을 존중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 초기 경전을 부처님 친설로 보고 나머지 대승 경전이나 선어록은 외도시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로 인하여 지금 한국불교는 적지 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의 뜻이 하나로 통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시비 분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불자들의 불교관과 가치관이야 더 말할 것이 없다.

교단의 지도자들은 부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초기경전과 대승 경전, 그리고 선어록이 모두 부처님 깨달음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한국 불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하지만 시련은 보살을 단련시키는 경계이니 이를 해결해나갈 때 한국불교는 더욱 더 빛날 것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한국밀교학회 2023년도 춘계 학술대회 개최

지난달 1일 위덕대, 대주제 ‘선과 염송수행’



한국밀교학회 2023년도 춘계 학술대회가 ‘선과 염송수행’을 대주제로 지난달 1일 경주 위덕대학교 갈마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수인사 주교 범상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한국밀교학회장 효명 정사를 비롯해 교계 관계자와 학자 등 1백 여 명이 동참했

다. 우인 정사는 인사말에서 “밀교와 현교를 아우르는 선과 염송수행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통찰을 얻는 자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밀교학회장 효명 정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학술대회는 불교라는 종교에서 대표적인 실천수행

이라 할 수 있는 간화선, 묵조선, 염불, 염송, 소리명상 등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불교의 이러한 수행방편들이 바르게 실천되었을 때 이원자주와 이원평등이 되어 갈등으로 인한 불화는 사라지고, 함께 살아가는 조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선의 역사와 특징(박재현 동명대 교수) △간화선 수행의 원리와 특징(김방룡 충남대 교수) △묵조선의 역사와 수행원리(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염불수행의 수행원리와 실제(최동순 전 불교의례연구소 조빙교수) △염불수행과 진언수행의 동이(同異)점에 대한 고찰(전 정토학회 회장 범상 스님) △소리명상에 대한 고찰(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경주 위덕대=박재원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본산 통리원 예방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22일 역삼동 본산을 방문해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통리원 집행부가 동석한 가운데 환담을 나누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상진 스님은 오는 12일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에서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재무부장 승원 정사, 총무부장 목경 정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도성 스님, 사서국장 일묵스님.

제119차 BBS불교방송 이사회 상임이사에 현민 스님 재 선임



BBS불교방송 이사회가 지난달 16일 제119차 이사회를 열고 현민 스님(조계종 호법부장)의 BBS불교방송 이사 연임을 확정하고, 상임이사직에 재선임했다. 또 포교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 추가 등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청주 지방사 연주소 이전과 부산 지방사 사옥건립 초기 사업비 대여의 건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직 이사 22명 가운데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이사장 덕문 스님과 현민 스님, 도진 정사, 이선재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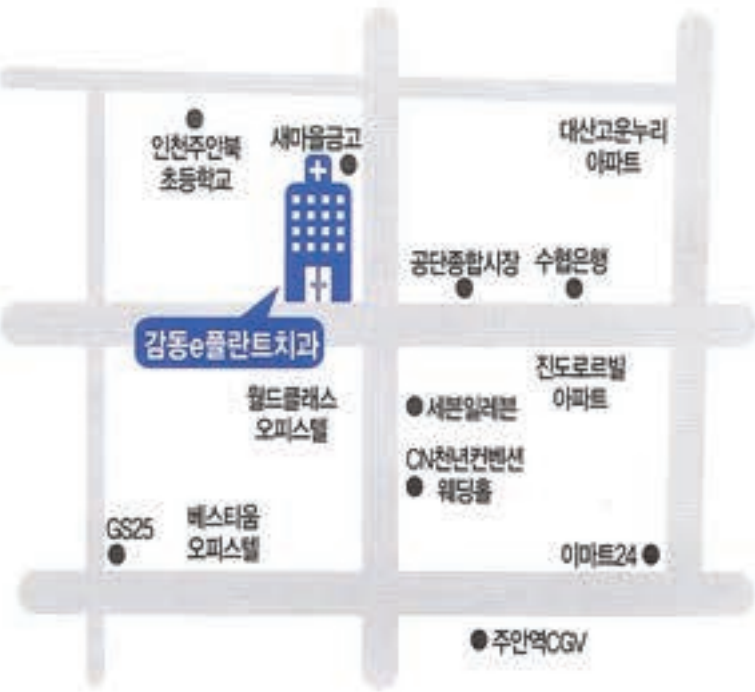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총기 52년 부처님오신날, 5백 5십 개 자비의 등 밝혀

서울 총지사,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으로 회향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켜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길이 어두워 오시지 못할까봐 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라고 연등을 켜는 것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총지
사(주교: 록경 정사)는 지역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내 달아놓은 5백 5십 개 자비의 등을 모두 밝혔다. 실제 동참자는 7백 명에 다다랐다.

‘1천원 자비의 등불로 이웃에게 희망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자신이 밝힌 자비등은 자비의 손길 이 절실한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으로 회향됩니다.’고 사원 주변에 안

내했다.

GS역삼싱아점 대표는 'GS25 사업발전'을, 현성전자 직원들은 '일동 건강 원만'을 서원했다. 또 미국에서 왔다는 한 외국인은 'Always smile and Happy life'(언제나 웃음 그리고 행복한 삶)를 서원지에 적기도 했다.

서원지와 보시함은 경내 안내 데

스크 위에 무인으로 운영됐으며, 연락처를 기재한 동참자들에게는 서원지를 단 후 인증샷을 보내주기도 했다.

록경 정사는 “우리 교도가 아니어도 또 불자가 아니어도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자비등 달기를 추진했다.”며 “나를 위해 밝히고 이웃을 위해 밝히는 등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어느때보다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원에서도 해마다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지사는 자비등 보시금 전액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에 희사했다.

축하합니다

총지사

조재환, 안지애 교도

조유현 손자 출생

(5월 16일)

부산 정각사 다도반 제2기 모집

매주 목요일 정기모임, 차공양 봉사도

언제 말아도 기분 좋은 꽃내음처럼 꾸준히 은은하게 차향기를 전하는 곳이 있다. 바로 부산 정각사에서 진행되는 다도반이다. 2016년 개설된 부산 정각사 다도반(반장: 김윤경)은 현재 정각사 내에 자리한 지역아동센터 시설 일부인 바라밀 공부방에서 다도전문가이자 정각사 교도인 김정애 선생의 지도로 운영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되는 다도 모임은 사원에서 필요한 음다, 행다법 등 다도와 좋은 차 구별하는 법, 발효차 녹차 등 종류에 따른 음다법 등을 시

연과 함께 체험을 통해 배우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한 주요 행사에서 차공양 봉사도 하고 있다. 현재 8명의 구성원으로 다도반이 운영 중이며 제2기를 모집중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다도반 김경애 선생은 종단 잡지 위드다르마 2018년 6월호(176호)부터 2023년 5월호(235호)까지 5년여간 매달 차항기 코너를 통해 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연재했으며, 정각사 다도문화 보급과 발전에 앞장서오고 있다.

문의=051-552-7901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중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삼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출야호사'로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대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범문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지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32)83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총지자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으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합근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파백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영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고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선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경3길 20-1 (구경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현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학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서길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곡로78번길 17 (부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سان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망인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9 (영문동)	(051)552-7901
화옥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영문동)	(051)556-0281~2

제7회 청소년
바른인성 프로그램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한마음 여름캠프

참된 나를
찾는 여행!

2023. 7. 25 - 27 (2박3일)

용인에버랜드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로199

대상

불교총지종 교도자녀, 관음학사 동해중학교학생

내용

인성강의, 문화체험

개별 참가문의

각사원주교 및 행사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